

알츠하이머 극복하기

알츠하이머병 공익 홍보 캠페인

캘리포니아에는 다른 어느 주 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을 받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수가 204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우리 모두가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(ADRD)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알츠하이머의 주된 위험 요소는 나이지만,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존엄하고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. 2019년에, Gavin Newsom 주지사는 알츠하이머병 예방, 대비 및 나아갈 길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개인 및 가족, 그들을 돌보는 간병인, 알츠하이머병으로

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주정부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.

함께 알츠하이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

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. “알츠하이머 극복하기 (Take On Alzheimer’s)”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한 다국어, 다문화 캠페인입니다. 이 캠페인은 다양한 지역사회에 알츠하이머의 징후, 위험 요인, 뇌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.

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알츠하이머는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
- 알츠하이머는 기억력, 사고력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의 일종입니다
-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690,000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
- 알츠하이머는 만성 질환이므로 두뇌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
- 알츠하이머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더 많이 발병합니다
- ADRD로 진단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이지만, 그 징후는 빠르면 55세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



캠페인과 알츠하이머 극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akeonALZ.com 을 방문하십시오.

